



"딸은 두 번 서운하다"

뜻: 딸은 옛날에 태어날 때 아들이 아니어서 한 번 서운하고, 나중에 다 키워 시집을 보낼 때 떠나보내기 아쉬워서 또 서운하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서운함 · 출가 ·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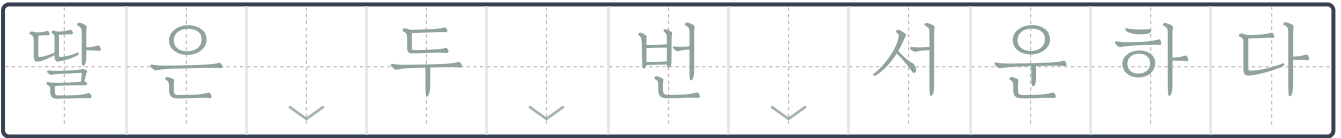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딸] [은] [두] [번] [서] [운] [하] [다]

웹에서 보기

